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스님의 ‘열반경 강좌’ 강의를 듣고 있는 스님들.

각성스님 ‘열반경 강좌’ 입재식에 가보니…

70여 출·재가자 공부열기 ‘후끈’

《법화경》《화엄경》과 함께 대승 경전을 대표하는 〈열반경〉 전권을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정각원과 통화불교 전강원은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스님을 강사로 2년간 동국대에서 복전(대열반경) 특강을 진행한다.

강의 입재식이 열리는 지난 15일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을 찾았다. 각성스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출재가자 70여명이 앉아 있는 가운데 강의실에서는 강사인 각성스님의 힘있는 강의가 이어졌다.

이번 강의는 지난 해 각성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은 통화불교 전강원 졸업생 스님들이 주축이 돼 개설됐다. 통화불교 전강원장 범경스님은 “졸업했다고 공부를 끝낼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

을 연구하며 깨달음을 공유하려는 각성스님의 당부를 듣고 강의의 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특히 대승 경전 가운데에서도 〈열반경〉은 최상의 진리를 담고 있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없어 이번 강연을 준비하게 됐다.

강의 교재는 북량시대 담무참스님이 번역한 복전 열반경으로 정했다. 총 42권 분량으로, 각성스님의 감수아래 범경스님, 보경스님, 용화스님, 도경스님 등이 직접 현토작업을 했다. 현재까지 6개월 공부분량이 수록된 1책을 발간했으며, 총 4권으로 교재를 완성할 계획이다.

각성스님은 “열반은 죽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라며 “열반경을 마치 죽을 준비하기 위해 보는 경전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이어 “여래께서 수행하신 이유나 모든 자비와 지혜공덕을 닦으신 이유는 열반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곧 불교 수행의 목표이기도 하다”며 “여래가 오신 뜻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설한 열반경을 대승불교의 제자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각원장 법타스님은 “열반경은 중요한 대승경전임에도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불교 도교 유교에 통달한 각성스님을 모시고 공부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각성스님의 대열반경 강좌는 2년간 이어진다.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2시 서울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어현경 기자 eonaldk@ibulgyo.com

조계종 선암사 주지에 정념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14일 임명

순천 선암사 재산관리권이 지난 4일 조계종·태고종 인수위원회로 이양된 가운데,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총무원장 특보단장 정념스님을 조계종 선암사 주지로 임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4일 정념스님에게 선암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어느 한 쪽이 감정에 치우치거나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면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며 “좋은 목적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을 갖고 인수인계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념스님은 “화합을 우선으로 하고 태고

종 측 존중하면서 훗날 서로가 잘한 일로 평가받기 위해서 신심과 원력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태고종 선암사 공동인수위원회와 순천시는 지난 4일 순천시청 상황실에서 선암사 공동인수인계를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복남 순천시 부시장으로부터 재산관리권을 이양 받고, ‘선암사·향림사 재산관리 인계인수 현황’ 등 관계서류를 받아 검토 중이다. 선암사 공동인수위는 현재 행정, 재무, 법무, 문화재, 부동산 등 5개 팀으로 나뉘어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현경 기자

4급 승가고시 합격자 발표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스님)가 지난 11일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치러진 4급 승가고시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g)에 게시된 명단에 따르면, 294명 응시

생 가운데 사미 145명과 식차마나니 125명 등 총 270명이 4급 승가고시에 합격했다.

성적우수자로는 문정스님(비구, 화엄사), 재마스님(식차마나니, 직할교구), 정원스님(식차마나니, 용주사)이 각각 선정됐다.

어현경 기자 eonaldk@ibulgyo.com



주한 교황청대사 총무원방문

자승스님 ‘세계종교포럼’ 협조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오스발도 파딜라 주한교황청 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사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조계종이 오는 2013년 개최하는 세계종교지도자포럼에 로마 교황청과 주한교황청 대사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와 함께 예방한 오스발도 주한

교황청 대사는 초청해 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뒤 “가톨릭과 불교가 이 세상이 평화롭고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오는 5월 방한하는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피에르 토랑 추기경과 함께 다시 찾아뵙고 종교교합을 논의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과 주한교황청 대사는 선물을 교환한 뒤 사찰음식으로 마련된 공양을 함께 하며 환담을 이어갔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전국 교구본사 사회국장 스님들이 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혜경스님)는 지난 14일 한

실천 활동, 사찰환경 보존 등 올해 종단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중앙총무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이날

“종단 결사운동에 적극 동참”

전국 교구본사 사회국장스님 결의

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전국 교구본사 사회국장회의’를 열고 생명과 나눔, 평화결사를 실천하는 방안

인사말에서 “사회부는 종단의 5대 결사 가운데 생명, 나눔, 평화 결사를 실천하는 주무부서”라며 “활동영역을 넓혀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실상사’

<1면에 이어>

제2의 화엄결사 추진

지리산 보호운동 전개

먼저 수행결사를 위해 실상사는 화림원 스님들을 중심으로 ‘제2의 화엄결사’를 추진하고 실상사에서 출가자의 역할 및 화엄학림의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음력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법회에서 벗어나 서원법회, 보현법회, 선지식법회, 참회법회 등을 통해 일요일법회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재가불자들의 수행을 돕기 위해 마음공부와 행복만들기 등 수행프로그램도 운용해나갈 계획이다. 문화결사의 실천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불사를 위해 마련한 ‘실상사 선언-불사십조(佛事十條)’를 바탕으로 불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와 성보, 실상사의 불교사적 가치 알리는 일도 주요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봉축행사를 통해 지역문화 육성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생명결사의 실천을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지리산 댐, 케이블

카 건설 계획 반대 등 지리산 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며, 생명살림을 위한 실상사 사부대중 청규제정, 생명존중의식 확대를 위한 교육,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등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장학제도 보충, 지구촌공생회 구호사업 및 종단 나눔결사 사업 동참(이상 나눔결사), 지리산종교연대 활동 강화, 이웃 종교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운용 등 종교간 대화 및 교류 활동(이상 평화결사)도 2011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지 해강스님은 “종단에서 명운을 걸고 진행하는 5대 결사의 방향과 실상사가 지향하는 가치와 다르지 않아 결사의 틀로 실상사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5대 결사의 틀에 맞춰 사업을 정리하고 앞으로 결사의 명칭에 걸맞은 내용을 만들어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단장학승에 증서수여

지난해 장학제도가 새롭게 개편된 이후 첫 수혜자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스님 5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장학증서를 받은 스님은 중앙승가대 계율 박사과정인 선나스님과 중국 북경대학에서 화엄철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일레스님, 영남대 한국불교사 박사과정

인 석중스님, 고려대 동양철학 석사과정 일안스님과 3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진휴스님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일레스님은 북경대 학기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스님들에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본분을 잃지 말고 종단이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며 “종단에서도 인재불사를 위해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격려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k@ibulgyo.com

동화사 승가대학 학인스님 모집공고

팔공산 동화사 승가대학에서는 불기2555(2011)년 신·편입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본 승가대학에서는 2011학년도부터는 교육원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을 시행합니다. 전통 교육과 현대 교육이 조화를 이룬 동화사 승가대학으로 학인 스님들을 초대합니다.

◆ 모집대상 _ 1학년 00명, 2학년 0명, 3학년 0명

◆ 모집기간 _ 불기2555년 3월 15일 ~ 3월 22일

◆ 구비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사미증(또는 수계증명서, 행자교육필증) 사본 1부
3. 은사스님 추천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증명사진 3매(사미의제, 만의 수한 사진)
5. 수료증명서(편입생에 한함)

◆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및 면접

◆ 문 의 처 _ 승가대학 (053)985-1984, 종무소 (053)985-4404

◆ 참 고 _ 장학금 지급 (타 본사 학인도 지급)
동화사 승가대학에 수학하면서 일반전문대(사이버) 수학 가능

대구한문불전대학원 학인 모집 안내

제9교구 본사 동화사에서는 종단의 교육원으로부터 대구 한문불전 대학원 인가를 받아 2011년 3월 개원합니다. 한문불전(선어록과 대승경전 등)을 심도 있고 체계적인 강의를 통하여 불교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종단의 대강백 스님들을 모시고 2년의 교과과정을 개설하오니 스님들과 재가신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대상

- 스 님 : 선착순 60명
- 재가학인 : 선착순30명(신도 및 불교대학 졸업자)

학제 및 교육장소

- 학 제 : 2년 4학기, 학기당 32회 수업
- 수업시간 : 매주 화·수요일 오후 6시~9시 통학교육
- 교육장소 : 보현사 (대구시 중구 남산2동 932-35번지)

등록금

- 스 님 : 1학기당 1,000,000원
- 재가자 : 1학기당 1,000,000원

접수기간

- 2011년 3월 15(화)~3월 31일(목)까지

신청방법

- 동화사 홈페이지(www.donghwasanet.net) 참고

보현사(대구시 중구 남산2동 932-35번지) 한문 불전 대학원 사무실로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승적증명서 또는 승려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매
 - 재가자인 경우 신도증 사본
- ※종단에서 인가한 불교대학 졸업자인 경우 졸업증서 사본 첨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주 소 : 대구시 중구 남산2동 932-35번지
- 전 화 : (053)252-3445

수료자 특전

- 대구한문불전 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을 인정함.